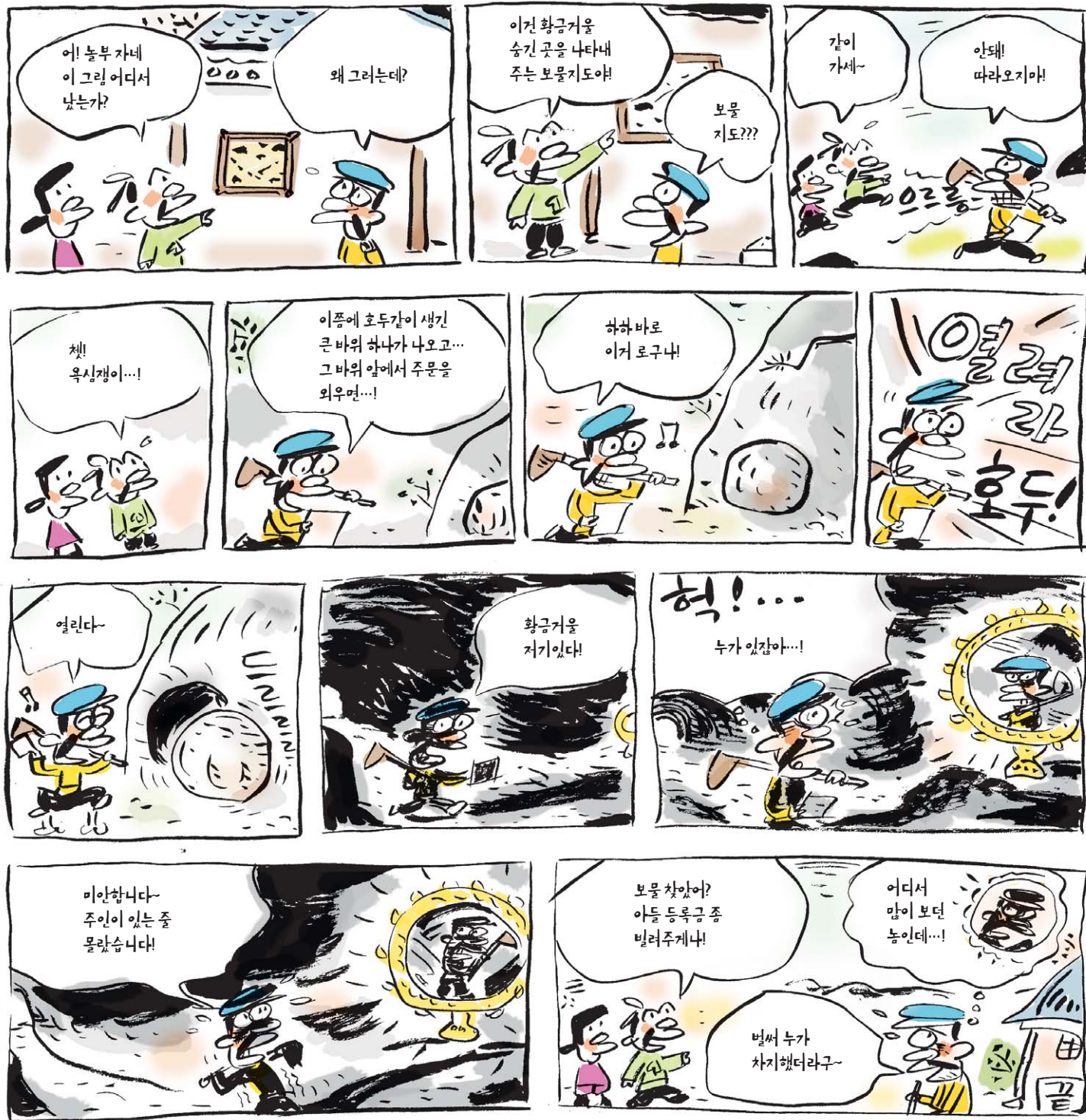


# 웃둥 보살 빛둥 거사 <46>

구성 : 김흥민



## 거울 속의 자기(自己)

〈백유경(百喻經)〉

옛날 어떤 사람이 몹시 곤궁해 많은 빛을 쬐으나 갈은 길이 없었다. 그곳을 피해 아무도 없는 넓은 곳으로 도망친 그는 보물이 가득한 상자를 보았다. 보물 상자는 거울이 덮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이 기뻐서 그것을 열려고 하자 거울 속의 사람이 보였다. 놀란 그는 함정하고 "상자에 그대가 있는 줄은 몰랐다. 성내지 말라"고 말했다. 어리석은 범부들도 또한 그와 같다. 나고 죽는 마왕(魔王)으로부터 한량없는 번뇌의 시달림을 받고는, 생사를 피해 부처님 법안에 들어와 선한 법을 행하고 온갖 공덕을 지으려 한다. 그러나 보물 상자를 보고 거울 속의 제 얼굴에 미혹된 어리석은 사람처럼 망령돼 '나'가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곧 집착해 그것을 진실로 여긴다. 그것은 마치 저 어리석은 사람이 보물 상자를 버리는 것처럼, '나'라는 소견에 집착하는 사람도 또한 그와 같다.



## 옛 판화의 세계

### 행사 스님이 법을 전하다 행사전법(行思傳法)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육조대사의 제자인 행사 스님이 법을 전하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행사(行思, ?~740) 스님은 중국 당나라의 선승(禪僧)으로 속성은 유(劉)씨이며, 노릉(江西省 廬陵) 출생으로, 어려서 출가하여 선종(禪宗) 제6대조 혜능(慧能)에게 배웠으며, 남악 회양(南岳懷讓·臨濟系)과 더불어 그 법통을 이어받고, 스승이 죽기 2~3년 전에 청원산(靑原山)의 정거사(靜居寺)에 거처하면서 법을 펼쳤다. 중국선종(禪宗)의 일파인 조동종(曹洞宗)의 제6대조가 됐으며, 그 문하에서 조동종 이외에 법안(法眼)·운문(雲門)의 2종(宗)이 나와 당나라 말에서 송(宋)나라 초에 걸쳐 크게 발전했으며, 제자가 불법(佛法)의 요의를 묻자 "노릉의 짙은 일마인가"라고 되물었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다. 본문을 살펴보면 "어느 날 육조대사는 행사 스님에게 말했다. '의법은 믿음을 표시하는 것이고 법은 마음에 도장 찍는 일이다. 나는 지금 법을 전할 사람을 얻었으니 어찌 믿지 못할 것을 근심하겠는가?'라며 법을 전했다. 스님은 특별하게 되자 공손히 교체해 돌아가겠다고 고하고 길주의 청원산 정거사로 가서 그곳에 머물렀다. 육조대사가 곧 시멸하게 될 무렵에 회천이라는 사미가 있었는데 그가 육조대사에게 물었다. '큰스님이 돌아가신 후에 회천은 마땅히 어떤 사람에게 의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조대사가 말했다. '계속 찾고 생각



고려시대 판화(木版) <행사전법(行思傳法)> 중종 16(1471년) 간행. 판 크기 27.2×18.0cm

해라.' 그 후 막상 육조대사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회천은 늘 고요한 곳에서 단정히 앉아 적적히 말이 없이 마치 삶을 잊은 사람과 같았다. 이에 수좌 스님이 물었다. '너희 스승은 이미 갔는데 공언히 앉아서 무엇을 하느냐?' 회천 스님이 말했다. '나는 육조대사의 유계를 받아 찾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좌 스님이 말했다. '너에게는 사형인 행사 스님이 있는데 지금 길주에 갔다. 너는 인연이 그분에게 있다.' 이로써 육조대사의 법은 행사 스님과 석두 회천(石頭希遷)으로 이어져 조동종으로 크게 발전했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화백물관장)



## 시가 있는 도량

### 꽃의 진언

뿌리를 잃은 날부터 난 내가 아니었다  
한 몸뚱이 싹뚱, 짙린 순간부터  
물관과 체관의 어긋난 길은  
가슴을 옥죄어 왔다  
사람이 사람을 건너 사막에 가듯  
나는 너를 건너 이곳에 왔다  
빛 한 칸 보이지 않는 2인용 식탁위에서  
가끔은 행복을 가장하기도 했지만  
누군가 꾸며 놓은 공간에서  
한 순간 끝날 듯기도 했지만

이제 내 안의 후리지아 향기를  
놓아 주며 시들어 가는 것이다  
더 이상 혈액은 내 몸을 돌지 않는다  
다시는 뿌리로 되돌아 갈 수 없음을 감지하는  
나는 분리의 출혈을 예감한다  
야원 목을 꺾어 내 지친 한 생애를  
소리 없이 낚인다

어디선가 내가 다시 피고 있다.

—김인구(작가연대) 2009년 상반기호

##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접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헤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육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 사찰 종합 보험 전문

사찰내외의 다양한 위험(화재 풍수해 도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 상해 질병의료비 보험 상담
-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상담
- 은퇴 후 노후 설계 상담



종합자산관리사 (IFP) 이진우 합장 011-766-1001